현장 소장의 능력

우리도 그의 용병술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많이 터지는 사람만이 진급 서열 1번,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현장만 들여다보는 소장이 사실은 옳다.
그러나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능력이 현장 소장의 능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사람의 능력이란 사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작은 프로젝트를 놓고 보면, 그 현장을 남기게 하느냐 밑지게 하느냐의 큰 차이를 때때로 보인다.

1980년 전후하여 사우디 주택부는 제다와 알코바 두 지역에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대형 아파트 공사를 국내 굴지의 H건설에 맡겼다. 각각 6억 달러에 가까운 공사 금액으로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였는데 현장의 크기만도 가로 2km, 세로 4km에 달했다.

류만년
전 현대건설 이사

본사에서는 큰 돈을 선수금으로 받아 희희낙락하였고, 조금 큰 현장인 알코바 지역에는 지장형(智將型)의 김 상무를, 제다 지역에는 용장형(勇將型)인 원 이사를 각각 소장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분은 성격이 판이하여 현장 운영 방법도 완전히 달랐다. 이는 결국 공사 말미에 한쪽은 이윤을 남기고, 다른 한쪽은 크게 밑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물론, 알코바 지역이 먼저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알코바의 시행착오를 제다에서는 반복하지 않는 덕을 보았으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일했던 제다 현장의 원 소장은 불칼 같은 성격에 번쩍이는 천재성, 직원 180여 명, 한국인 근로자 2,000여 명, 인도인 2,500여 명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주무를 뿐 아니라, 핀란드인 공사 감독, 나아가 발주처인 주택부 관리들도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늘을 찌르는 카리스마로 현장을 리드하였고 본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슬슬 문제점을 풀어나갔다. 그러나 알코바의 김 소장은 참으로 이론에 밝고 경험도 많았으며 성실한 분이었으나 모든 일이 엉켜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년에 한번씩 서울 본사에서 열리는 전 해외 현장 세미나. 알코바의 김 소장은 공무부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늦고, 무엇이 지원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1시간 반을 울다시피하다 내려갔다. 직위가 높은 대형 현장의 김 소장인지라 아까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도 다른 현장의 부장급 소장들은 아무런 군소리도 못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단상에 오른 우리의 원 소장은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는 10분 만에 내려가려 하였다. 지역만 다를 뿐 같은 공사를 하는 현장 소장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서울시장인 당시 이명박 사장은 어이가 없어 내려가려는 원 소장을 제지하였다.

"원소장! 정말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털어놔봐요. 지원해줄 테니."

"이렇게, 저렇게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두 본사와 해외 지점의 지원 덕분이지요."

수십 명의 해외 현장 소장들이 일순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는 한 술 더 떠 간접적으로 사장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추어 여러 유관 조직을 편하게 하였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다. 사실 그는 알코바의 김 소장보다 국내 경력은 짧지만 해외 현장에서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해외 현장은 핵심 3대 요소 곧, 공사 감독, 공무팀, 외자재 조달팀 이 셋만 장악하면 손쉽게 일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김 소장은 새벽 5시 반부터 직원들을 들볶았다. GMC 서버번을 부르릉거리며 현장을 누비고 다닐 뿐 아니라, 쉬는 날도 없었다. 그러나, 제다의 원 소장은 모든 쉬는 날은 다 쉬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였다. 하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에게 질책 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공무팀의 김 부장과 자재팀의 필자였다. 그에게 터지는 것이 일과였던 우리 두 사람은 일부러 야단맞으러 밤에 그의 숙소에까지 결재 서류를 들고 가서 혼나고 돌아가곤 하였다. 우리도 그의 용병술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많이 터지는 사람만이 진급 서열 1번,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현장만 들여다보는 소장이 사실은 옳다. 그러나,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능력이 현장 소장의 능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CJ